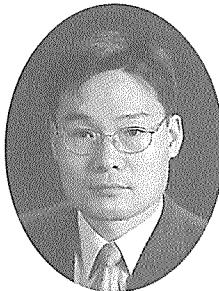


# 석유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신 용 삼

〈현대정유 업무팀 차장〉

## 창립 20주년을 맞은 석유협회

석유협회가 창립된지 20년이 되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금년들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석유업계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석유협회(이하 “협회”)는 1980년 9월 창립된 이래 산업자원부(창립초기에는 동력자원부였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추천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1997년 1월 석유수출입업이 자유화되면서 현재에는 납사제조용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물량 추천업무로 축소된 상태다.

따라서, 협회의 주된 업무는 회원사인 정유5사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대외의 견의, 석유관련 대내외 정보 수집/자료발간, 석유협회보 발간 및 석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기능이었다.

## 2000년도 석유협회의 역할

금년도에 들어와서 석유협회가 추진해온 주된 과업중

하나는 보일러등유의 직매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가고 있는 「석유화학부생 연료유에 대한 형평성 있는 과세방안」 확립이었다.

동 건은 일부 석유화학사에서 간이석유정제시설(Splitter)을 설치한 후 양산되는 석유화학부산물(Heavy End 등 석유화학부생 연료유)을 ’98년부터 계열사 및 정유사 직매처 등에 유통시키면서 촉발된 문제였다.

동 석유화학부생 연료유는 보일러등유의 대체유류로 홍보되고 공급되어 왔지만, 보일러등유가 부담하고 있는 특소세 등 일체의 조세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정유사의 보일러등유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왔다.

이에 협회는 석유화학부생 연료유에 대해서 보일러등유와 같은 수준의 특소세 등 각종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립시켜 줄 것을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에 견의·요청하여 온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말 동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함으로써 정부방침으로 결정지었으며, 국회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표1〉 등유 및 석유화학부생 연료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안

(단위 : 원/l)

유종	현행	2001.7	2002.7	2003.7	2004.7	2005.7	2006.1	2006.7
등유	60	82	107	131	154	178	205	231
석유화학부생연료유	-	60	78	96	112	130	150	169

주) 「석유화학부생 연료유」의 특소세 : 등유 특소세의 73%

그런데, 동일용도의 연료유간 특소세를 차등화하는 상기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정유 5사는 모두 석유화학공정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세액이 차이날 경우 석유화학부산물을 바로 시장출하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화학부생 연료유의 특소세」를 「등유 특소세」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판매부과금(20원/l)을 석유화학부생 연료유에 대해서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협회가 추진해온 과업으로서 「B-C유와 LNG간 적정한 가격구조 확립」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억제, 환경오염 저감 및 에너지원 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B-C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현행 가격 구조하에서도 B-C유에서 LNG로의 수요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유에 대한 특소세 신규부과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석유제품의 연산품적 특성으로 인해 유종별 생산량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중유의 공급과잉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회는 B-C유에 대한 특소세 신규부과시기를 최소 5년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에 건의·요청해왔다.

정부는 지난 9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단계적 세제개편안에 B-C유를 편입시킴에 따라 과세시

기의 5년 유예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표2〉 B-C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안

(단위 : 원/l)

유종	현행	2001.7	2002.7	2003.7	2004.7	2005.7	2006.1	2006.7
B-C유	-	3	6	9	11	15	17	20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B-C유에 대한 특소세 부과시기는 B-C유 공급과잉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까지 유예하고, 2005년 이후 전체 공적 Cost 기준에서 LNG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석유협회는 금년 4월 유통협회 및 주유소 협회와 합동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 발전방안」이라는 과제명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동 연구용역을 통해 상표표시제의 개선방안, 유통질서의 확립방안, 국내석유제품 물류의 효율화 방향, 석유제품 현물시장 및 전자상거래 발전방안 등 제반 유통현안과제가 검토·분석되고 있다.

아무쪼록 동 연구용역의 결과가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줌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질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국내 석유산업의 내부 및 외부환경이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빨리 변화하고 있다. 그럴수록 석유사업자의 시장적응을 위한 노력은 한층 더 배가되어져야만 하며, 이에 비례하여 협회의 역할도 보다 더 동적이며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 정유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정유사는 금년 7월부터 군납 및 소매시장에서의 가격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 군납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부과금액은 사상 최유의 최대금액으로 각 정유사에 고지되었다.

가격담합에 대해 의혹을 갖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서 석유제품의 내수가격과 수출가격간 차이 발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석유산업과 같이 소비자정체주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내수위주 산업의 경우 고정비를 내수 시장에 배분할 수 밖에 없으며, 한계시장으로서의 수출 시장에 대한 판매여부는 동시장의 공현이익(수출가격이 변동비보다 큰 경우) 발생여부로서 결정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시장에서 공현이익이 발생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내수시장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가격담합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또다른 원인으로서 정유사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유사간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주로 정제마진폭이 매우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 가격자유화 이전의 정제마진 개념(투자자기자본의 세후 10%)이 아직도 유가연동 방식에 의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동 정제마진은 1리터당 2.4원(약 2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격경쟁의 결과가 실제 가격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는 구조상의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유산업은 일반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수익성이 대단히 좋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의 국내 정유사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표 3〉 최근 10년간 ('90~'99) 연평균 경영실적  
(정유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매출액 (A)	세 전순이익 (B)	세후순이익 (C)	매출액순이익율 (C/A)
정유5사	173,370	1,280	403	0.23%

최근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내 정유산업의 현

황을 보다 더 널리,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심도있게 알릴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협회의 대외 홍보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국내 정유사 및 협회가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등을 통한 수익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석유소비자 모두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유산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 용어해설

##### • 프로그램 매매(바스켓 매매)

'바스켓 매매'라고도 부르는 프로그램 매매란 주가지수 선물과 현물 주가(KOSPI200 지수)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무위험 수익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매매의 시초는 1976년 뉴욕 증시와 아메리칸 증시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DOT(Designated Order Turnaround)라는 주문 시스템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 중요한 점은 개별 종목을 사고 팔 듯 여러 주식으로 구성된 주식 바스켓을 한꺼번에 사고 팔다는 데 있다. 즉 선물이 높게 평가돼 있으면 선물을 팔아 현물을 싸게 살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매수가 일어난다.

반면 선물이 낮게 평가돼 있으면 선물을 사기 위해 현물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그러나 수많은 현물 주식과 선물종목으로 구성돼 있는 바스켓을 한꺼번에 사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주 빠른 속도로 미리 등록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주문해처리하게 된다.

프로그램 매매는 거래 규모가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시가총액상 주요 종목에 대해 동시 주문을 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